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40> 송대 이학가(理學家)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과 흡수(2)

불교의 '이치[理]'에 대한 학설을 비롯해 불성론, 수행론 등 세가지 사상을 흡수한 송대의 이학(理學)은 다시 불교의 사상적 흐름, 특히 거사불교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이학가들의 불교교학과 선학의 뒤임은 바로 거사불교의 또 다른 형태로도 해석된다. '이학'의 성행으로 거사불교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이학'의 영향으로 그 이전보다도 더욱 깊게 강상명교(綱常名教)가 불교사상에 삼투(滲透)됐고, 그에 따라 '출세(出世)' 지향이 '입세(入世)'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둘째, 현실적인 입세의 지향은 결국 궁극적인 절대까지, 혹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를 어느 정도 회색시키는 경향을 초래해 불교를 통속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에 따라 송대에 극성기를 이뤘

학'을 불교로부터 '격의(格義)'된 사상으로 파악해 그들의 전기를 실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거사전>에 실린 대표적인 이학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학가를 말하자면,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대표적이다. '이학'의 출발이 그로부터 일어났고, <거사전> 등의 많은 거사를 다룬 전기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학가이며, 그의 학설 가운데 상당히 불교와 밀접한 논리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송원학안(宋元學案)> 권12에 따르면, 그는 불교를 결코 비판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반대로 그의 모든 저작은 모두 불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 실제로 주돈이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불교에 대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음이 쉽게 발견된다. 그가 불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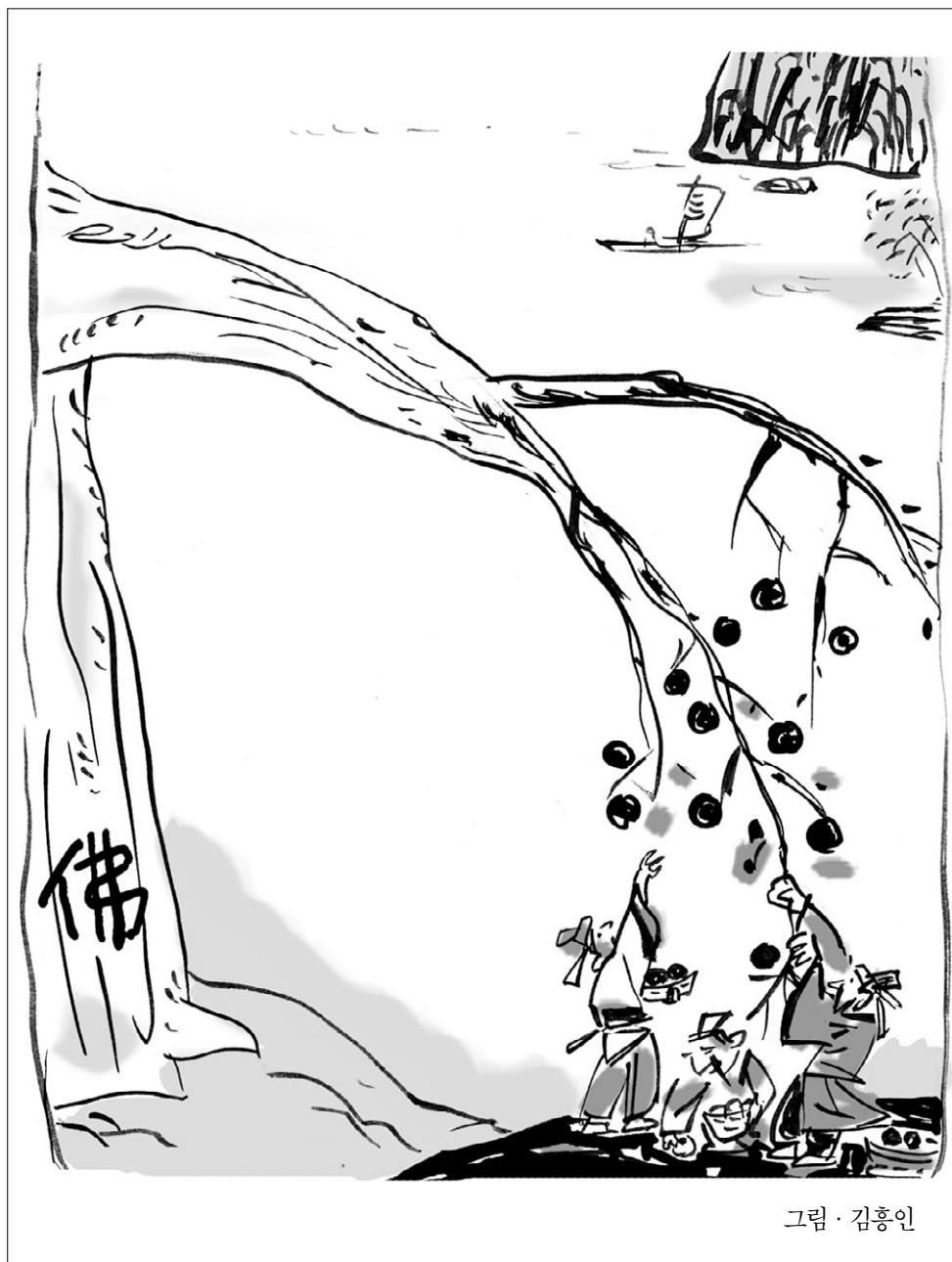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니, 바로 '일즉일체(一卽一切)'로서, '금사자의 털 한 올은 바로 금사자이고', '차마가 바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옹이 시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하다.

장재(張載; 호는 橫渠, 1020-1077) 역시 '이학'에 불교를 결합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장재의 학설은 "태허무형(太虛無形, 기지본체(氣之本體))의 이른바 '기론(氣論)'이다. '기(氣)가 모이지 않으면 밝게 있어서 형(形)이 있게 되고, 기가 모이지 못하면 밝게 볼 수 없어서 형이 없어진다'(<정몽(正蒙)>)라고 해 천지만물을 '기'의 조화로 보았다. 또한 '기의 근본은 태허(太虛)이니, 바로 하나에 빠져서 형(形)이 없는 것이다. 미혹하여 생함은 바로 상(象)이 있음'이라고 해 이른바 '태허'를 '기'의 본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허'와 음양(陰陽)의 '기', 두 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태허와 기가 합해 성(性)의 이름이 있다'고 하며, '성(性)의 그 총체는 들은 합한다'고 했다. 장재가 여기서 말한 '성'은 결코 인간만이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천지만물을 포괄하는 하나의 총체적 개념이기에 "성은 만물의 한 근원으로, 나의 사사로움을 얻음은 있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을 포괄하며, 인간과 천지만물의 공통적인 근원이다. 이러한 '성'의 특징은 "태어나 얻음이 없고(生而無所得)", "죽어 잃음이 없다(死而無所喪)"고 하여 생멸에 상관 없이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존재이다. 장재는 이러한 '성'을 '천지지성(天地之性)'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불교의 '진여불성'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거사전에는 주돈이, 소옹, 장재 이외에 정호(程頤; 1032-1085) · 정이(程頤; 1033-1107)의 이징(二程)형제와 양시(楊時; 1053-1135), 사량좌(謝良佐; 1050-1103), 유추(游酢; 1053-1123), 그리고 '이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 1130-1200) 등의 전기와 그 사상들을 실고 있다. 지면관계상 그들의 사상을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학가들의 사상은 그 바탕에 걸쳐 불교의 사유와 사상적 틀을 담보하고 있음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학'은 이후 육왕(陸九淵과 王陽明)의 '심학(心學)'으로 분기되는데, '심학'에 이르러 보다 더 불교에 가까워졌다.

송대는 유학을 바탕으로 한 사대부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시대였기에 이른바 문인들의 천국이었다.

또한 이 시기의 불교는 그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변용해 유학과 합일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사상적으로 '이학'의 출현을 연 출했다. 이학가들을 불교의 '거사'에 포함시키려는 가하는 문제는 쉽게 논할 수 없는 여지를 남기지만 (역대 거사전의 편지들은 포함시켰지만) 분명한 것은 '이학'과 이학가들의 활동은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면모임에는 틀림없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학' 성행으로 거사불교 출세에서 입세로 전환

생애와 사상 불교색채 가득한 이학가들 '거사전' 실려

던 '오가칠종'의 조사선은 점차로 쇠퇴했고, 지극히 '현세' 적 실천이 강조되는 타력(他力)의 염불정토(念佛淨土) 신앙이 주류를 차지하게 됐다. 물론 이러한 불교의 흐름을 전적으로 '이학'의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다. 조사선에서는 이른바 '끓임없는 초월의 길(向上之路)'을 제창해 최종적으로 '지금 이 자리 전리의 세계(當下即是)'로 귀결시키면서 사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정봉(頂峰)에 이르렀고, 더 이상 '초월[向上]'이 없는 사상은 쇠퇴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

어쨌거나 송대에는 '이학'이 사상적 주류를 차지하며 출현한 뛰어난 이학가들이 당시의 사상계를 이끌었다. 중국불교에서는 이러한 이학가 가운데 상당수를 불교의 '거사'에 포함시켜 <거사전>, <거사분등록>,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 <명공법회지(名公法會志)> 등에 전기를 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송대 이학가들을 모두 '불교의 거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비교적 불교에 호의를 보인 몇몇의 이학가들조차도 실제적으로는 불교를 비판한 경력이 있어 결코 온전한 불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학가들은 당시 승가와 교류가 빈번했고, 많은 선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에 따라 거사전의 편찬자들은 이학가들의 생애와 사상에 불교적인 색채가 가득하니, '이

었던 이유는 '이학'의 건립 자체가 결코 불교의 사상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돈이는 이른바 '거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성향을 지녔다. 그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에는 연꽃을 "더러움에서 나오지만 오염되지 않았다"고 찬탄했고, 황정견(黃庭堅)의 <염계사방서(濂溪詞并序)>에는 "주돈이가 비록 벼슬살이 30년이나 평생 뜻을 산중에 있었다"고 했다. 포종명(蒲宗孟)이 찬술한 그의 <묘비(墓碑)>에는 "외로운 바람 초하룻날 아침에 속진을 벗어난 곳에 마음을 두어 항상 높이 깃들고 멀리 은둔할 뜻을 가진 선생"이라고 평했고, 또한 주돈이 자신도 "항상 고승과 더불어 소나무 숲을 지나, 눈 덮인 봉우리에 올라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으며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거사분등록>권하에 따르면, 주돈이는 회당조심(晦堂祖心)과 동림상종(東林常總) 선사에게 법을 물었다. 처음 회당 선사에게 법을 물을 때, 선사는 그에게 가장 익숙한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도이기에 저녁에 죽어도 괜찮단 말인가? 인자(顔子; 顔淵)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는데, 즐기는 자가 무엇인가? 다만 이 구경(究竟)에서 오래오래 자연히 결합하는 곳을 찾아라"고 가르쳤다. 후에 주돈

이는 "회당 선사는 제자에게 중니(仲尼), 안자의 즐거움과 어떤 일을 즐기는지를 찾도록 했다"(<송원학안>권12)고 말했다. 이로부터 회당 선사가 '회두'의 참구방법으로 주돈이를 이끌었음이 짐작된다.

또한 <거사분등록>의 주돈이 전기에서는 "나의 이 미묘한 마음은 황룡(黃龍) 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불인(佛印) 선사에게서 밝힘을 받은 후 <주역(周易)>의 이치를 확연히 통달했다. 상총(常聰) 선사의 열고 답음으로 탁마함이 없었다면 안과 밖이 훤히 밝아질 까닭이 없었다"고 자신의 학문적 배경이 분명하게 불교에 있음을 인정했다.

주돈이에 이어 '이학'의 토대를 구축한 이가 바로 소옹(邵雍; 1011-1077)이다. 소옹 역시 대부분의 거사전에 전기가 수록돼 있다. 소옹의 학문적 특징은

'선천상수학(先天象數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창세론(創世論)으로, 천지(天地)보다 앞선 존재로부터 만물 창조의 원리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옹의 학문에는 그 바탕에 철저하게 불성론의 형식과 논리가 배어있음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그의 <관물음(觀物吟)> 가운데 "한 물건이 한 몸에서 나오고, 한 몸에서 다시 한 우주가 있다. 만물이 나에게 갖춰 있는 줄 능히 알면, 분명히 삼재(三才)를 따로 근본으로 세울 것이다"(<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권4)라는 시가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한 몸에서 다시 한 우주가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화엄종의 '탈구명에 대한세계가 현현하고,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는 사유양식과 유사함이 짐작된다. 화엄에서는 '일진법계'로부터 현현하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안내**
 - 개강일시: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 강의장소: 서울 본 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제, 49제, 사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염반, 구병시식 등)
- 신청방법**: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 (한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나무아미타불 염불절수행 용맹정진

[1일 절 1만배, 염불 10만번]

부처님은 '참나'입니다. 불자는 참나인 부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나인 부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참나를 믿는 사람이고, 참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인 부처님께 귀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여섯 가지로 표현한 말이 '나무아미타불' 육자염불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며 절하고자 동안자 특별용맹정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무한 위신력을 지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참생명인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싶은 분, 민가의 소망을 꼭 성취하고 싶은 분, 부처님의 가피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이번 용맹정진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으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이니라. 보살은 마땅히 알라. 믿는 자는 곧 선(善)이요, 믿지 않는 자는 선이라 할 수 없음." [열반경]

"나의 참생명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이룩한다."

- 일시: 8월 15일(토) 0시부터 24시까지 8월 14일(금) 저녁 11시까지 입실 완료
- 장소: 안암동 보타사 (고려마애불 기도도량) ※ 지하철6호선 '안암역(고대병원)' 2번 출구 개운사 방향 6백미터 지점
- 문의: 02)928-2074 보타사 / 011-768-8881 총무 http://cafe.daum.net/buddhapower[다음카페 '불력회']

제가불교의 새로운 희망
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불력회(佛力會) 대표법사 덕암 박종린 합장

사주.퇴마.빙의.작명 (신생아 이름) 수강생 모집

◆사주풀이 구공팔배법 ◆심령을 통하는 기도
◆하루일진 래정법 ◆육혼법
◆제갈공명 천비술서 ◆귀신뽑는 신통술

전생요법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조상 귀신이 붙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술

※ 스님들도 꼭 알아야 인기가 있고 신도가 많다 ■ 모집인원 : 10명 ■ 교육비용 : 200만원

◆ 부부인연 원진살 살풀이법 ◆ 신년운세, 직장취직운
◆ 조상원귀법 영가천도 ◆ 귀문관살 푸는 법
◆ 병을 일으키는 악령귀신 푸는 법 ◆ 백호대살 푸는 법
◆ 육효점, 육임점, 하루일진 래정법

작명(신생아 이름) 음양오행 이름을 지어주면 만사형통, 건강, 재물, 학업성취

경기 성남시 성남동 2318번지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 (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모임정사 (달마 스님)
031)755-3775, 011-857-3775